달러 3 차 하락, 앞으로 20% 추가 하락

개인적으로 현재 시장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달러의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영익 교수님께서 워낙 확실한 뷰를 이야기해주셔서
기준점으로 잡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1985 년 플라자합의 이후에 있었던 1 차 달러 하락

2000 년 닷컴버블 이후에 진행된 2 차 하락 이후,

이번에 3 차 하락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하셨는데요.

이유가 중요하겠죠?

1) 미국 경제가 경착륙

수요가 급감할 것이다. 왜냐하면, i)작년에 실질 소득이 금감 했고, ii)부의 효과(wealth effect)가 감소할 것이며, iii) 가계저축률은 이미 최저 수준(3.4%)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소비할 여력이 남아 있지 않다! 입니다.

게다가 금리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12 개월 정도 된다고 하니, 앞으로 미국경제는 더 안 좋아질 일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만, 지난주에 나왔던 고용지표가 문제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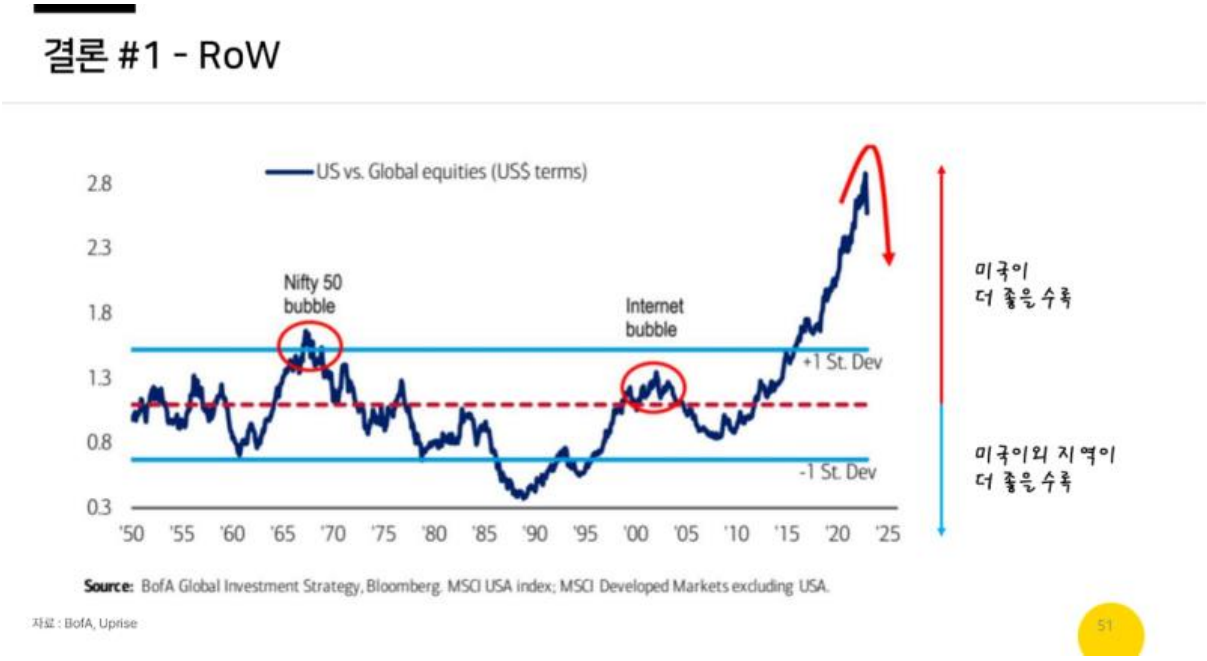
https://naver.me/56DvPnwl

고용지표는 후행적이기 때문에 최근 발표된 지표는 과거에 좋았던 것을 이야기할 뿐 미래를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좀 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소비가 급감할 가능성이 큰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

2) 미국에서 해외로 자금 유출

올해 가장 중요한 화두가 RoW(Rest of the world)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미국 달러의 가치는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결정됩니다.

(방송중에 제가 이렇게 정리하니까, 교수님도 쉽게 잘 바꿔줬다고 칭찬을... 쿨럭)

"미국이 전세계로 돈을 뿌리는데,

그 돈을 어떤 이유에서든

다시 미국으로 돌려주면, ***달러가 부족해지니까 강세"***

그 돈을 왜 미국으로 다시 돌려주나요? 라고 하면, 미국 주식과 채권에 대한 신뢰 때문에 미국 투자가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거대한 흐름이 바뀐다면?? 이런 질문은 해볼 수 있는 거죠.

대표적인 케이서는 **중국과 일본이 미국 국채를 사줄 돈 없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중국은 의지가 없는 것 같고, 일본은 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엔화는 그냥 찍어내면 되는 거긴 하지만...

3) GDP 대비 정부 부채

미국의 부채가 너무 많다는 점을 지적해주셨는데, 저는 이 부분은 크게 동의하긴 어려운 이유가... 일본이나 유럽도 마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달러에 대한 전망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것이 기반이 되어서 모든 전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저는 전망은 안 하고,

의미 있는 변화가 있을 때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얍삽하게...)

당분간은 100~103 정도에서

횡보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5 월 전후로 방향이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 리오픈이 미치는 영향

중국 리오픈이 어떤 영향을 주는 지도 상당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주말에 올라온 한국은행 자료를 정리한 내용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https://naver.me/FIYz6i7q

한은 보고서의 결론은 아래와 같습니다.

향후 중국 리오프닝이 본격화될 경우 글로벌 경기의 진작효과가 크겠으나, **주요국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는 중국 공급망 차질 완화에 따른 하방요인과 원자재 수요 확대 등에따른 상방요인이 혼재**되어 있어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1) **중국의 공급차질 완화**는 글로벌 물가의 하방압력으로 작용하겠으나 금번 재확산에 따른 차질 정도가 과거 확산기에비해 작았던 만큼 추가적인 완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2) 반면 중국의 펜트업 수요가 빠르게 확대될 경우 **원자재가격 등에 상방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을 증대시킬 가능성**이 있다.

중국이 물건 더 만들 수 있게 되어서 인플레 잡히는 것보다,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생기는 인플레이션 효과가 더 클 것이다!가 결론입니다.

이 내용에 기반해서 질문을 좀 드렸는데, 교수님의 생각은 중국이 늘어나봐야 미국의 소비가 급감할 것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전세계 소비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4%이고, 중국이 18%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마도 중국의 비중이 아직은 작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나, 거의 비슷한데... 중국이 늘어나는 비중이 미국이 줄어드는 비중 보다 크지 않을까요??)

디스인플레이션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중국 변수는 인플레를 자극하는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인플레이션 하락이 멈추는 수준이 2%가 아니라 그보다 높을 가능성"**을 기본 시나리오로 두고 있습니다. 그 때 생길 수 있는 것이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 하락 및 금값의 본격 상승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나?

김영익 교수님은 매우 뚜렷한 뷰를 제시해주고 계시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부담되지 않으시냐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해주시더라구요 "제가 하는 대로 그냥 말하는 겁니다." 와~ 정말 대단하죠!!

모델에 따라서 본인도 투자를 하고 있고, 투자하는 대로 이야기한다!!

아무튼 우리나라 가계 자산 중에서 실물자산(부동산)의 비중이 78%이고, 금융자산의 비중은 22% 밖에 안되는데, 금융자산 중에서 주식의 비중이 20% 수준이라서 전체자산에서 차자히는 비중은 불과 4% 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이런~~!! 대한민국 투자자들의 주식비중이 늘어나려면... 그릇이 예뻐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거버넌스 개선). 어쨌든 이 논리는 KOSPI 의 저평가 이유 및 상승 논리로 자주 활용되곤 하죠~

김영익 교수님 Pick

1) 주식 비중은 60%까지 늘려놨다

2) 장기채 매력(x) 단기채를 사야 된다

3) 비트코인도 사야된다. #달러약세 #금리하락

4) 부동산은 계속 어려울 것 같다